



국가대표 강소기업. (주)와이지-원(YG-1)

주력 제품군 다각화를 통한 고품질 절삭공구 시장 주도

주식회사 와이지-원(대표 송호근, YG-1 Co., Ltd)은 절삭공구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1981년 12월 설립되어 1986년 9월 (주)양지원공구로 법인 전환을 거쳐, 1997년 8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후 1999년 10월 (주)와이지-원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특히 와이지-원이 생산하는 절삭공구에는 각종 금형이나 자동차, 항공기 동체를 깎는 데 쓰이는 엔드밀(End Mill), 드릴(Drill), 탭(Tap) 등이 있으며, 다양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 고부가가치 및 소모성 공구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절삭공구(Cutting Tool) 산업은 세분화된 다양한 제품 종류와 규격, 정밀한 가공기술의 필요, 다품종 소량생산과 소모품성 특성(2~10시간 등 일정시간 사용 후 교체) 등으로 인해, 기본적인 생산설비 구축과 오랜 경험 및 기술력에 기반한 안정화된 생산능력, 장기간에 걸쳐 구축한 유통망 등이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절삭공구는 금속 또는 비금속을 가공할 때 직접 접촉하여 깎아내는 도구로서 주로 선반, 밀링, 보링머신 등 관련 공작기계에 부착되어 사용되며, 사용 형태를 기준으로 Solid 타입과 Indexable 타입으로 양분된다. Solid 타입은 접촉 부위 날과 몸통이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며, Indexable 타입은 날 부분만 교체가 가능한 타입이다.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절삭공구 시장은 Indexable 타입과 Solid 타입이 6:4의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서 각 타입별로 다시 규격화된 스탠다드 타입과 주문 제작되는 스페셜 타입이 각각 7:3의 비중을 보인다고 한다. 또한 제품의 최대 수요처는 자동차와 항공, 전기전자 산업이 각각 1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제품 용도상 대부분의 제조업에 걸쳐 수요가 분포되어 있다.

주력 생산은 Solid 타입으로 텅스텐을 주 원재료로 하여 절단-연마가공-코팅 등의 공정을 거쳐 생산되며, 자동차/항공/전자/기계 등 대부분의 산업을 전방수요로 하고 있다. 국내 다수의 Solid 타입 절삭공구 업체 중 와이지-원이 내수기준 생산·판매 1위의 시장지위를 점유하고 있다.

절삭공구 '엔드밀' 분야 세계 1위, 와이지-원

다만, 절삭공구 시장 전체적으로는 Solid 타입보다 Indexable 타입에 대한 산업 수요가 높은 수준이며, Indexable 타입이 상대적으로 마진율이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이다(Solid 타입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가부담이 낮다). 이로 인해, 와이지-원은 2014년부터 Indexable 타입의 생산을 준비해 왔으며, 201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와이지-원은 충주공장 신축을 통해 기존 주력 제품군인 Solid 타입 이외에도 Indexable 타입 제품 생산을 추진함으로써 제품군을 다각화하고 있으며, 주문생산 방식의 스페셜 타입의 매출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Indexable 타입 진출은 브랜드 인지도의 향상과 사업기반의 안정성을 보완할 것으로 보여 점진적인 실적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리고 제품 다각화와 판매지역 다변화 등을 통해 구축된 글로벌 판매망도 장기적으로 사업안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국내 수위의 시장지위와 오랜 업력에 기반한 고정거래처 등을 통해 비교적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유지하는 바탕이 되고 있다. 특히 절삭공구 제품의 특성상 대부분의 제조업을 전방산업으로 두고 있으며, Solid 타입 제품군에서 국내 1위, 세계 수위권의 시장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 등이 사업경쟁력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장에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는 송호근 대표(좌측)



특히, 와이지-윈이 생산하는 엔드밀(End Mill)은 밀링머신에 부착시켜 각종 금형, 공작기계, IT기기, 선박, 항공기 등을 정밀 가공하기 위한 절삭공구로 초정밀도와 내구성이 요구되며 오랜 기술 축적과 노하우(Know-How)가 필요한 기술집약형 제품으로 각 산업에 필수적인 제품이다.

또한 드릴(Drill)은 금형, 공작기계부품, 자동차부품, 전자기기부품 등의 공작물에 구멍을 가공하는 산업용 절삭공구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절삭공구이며, 탭(Tap)은 주로 자동차부품, IT기기, 선박, 항공기 등 각종 금형에 드릴로 구멍을 가공한 후 나사를 정밀 가공하기 위한 제품이다.

위의 3가지 제품 중에서도 Solid 타입 시장 기준으로 엔드밀(End Mill)은 세계 1위의 생산능력, 탭(Tap)과 드릴(Drill)은 각각 4위와 6위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와이지-윈의 엔드밀은 분당 최고 5만번 회전을 하는 옆면에도 날이 달려 직선과 곡선 가공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이 엔드밀 제품은 세계시장에서 14% 안팎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세계 1만 곳이 넘는 엔드밀 제조업체 가운데 1위의 시장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와이지-윈의 대표적인 제품이다.

75개국에 수출, 전체 매출의 75%가 해외서 발생하는 국가대표 강소기업

와이지-윈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엔드밀(End Mill) 단일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업체로, 2015년말 세계 100여개 국가의 200여개 기업에 납품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1위의 엔드밀 전문 기업의 자리를 더욱 굳건히 지켜가고 있다.

1000분의 5mm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절삭공구는 오차를 줄이는 것이 기술력인데, 와이지-윈은 철저한 기술개발로 현재 도요타 자동차 엔진, TGV를 제작한 알스톰 등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을 정도로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절삭공구 생산 장비는 높은 정밀도와 균일한 생산 능력을 요구하는 제품 특성으로 인해 스위스·독일·미국 등의 국가에서만 생산하였으나 와이지-윈은 기존 수입 제품에 비해 40~50% 저렴한 가격으로 국산화에 성공해 비용절감 효과까지 거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와이지-윈은 30여년간 축적된 기술로 미국·독일·일본 등 선진국 제품의 품

질과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에 있으면서도, 선진국 업체에 비해 약 20%~30% 낮은 가격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전체 매출액의 약 75%가 수출에서 발생하며, 또한 매출의 약 55%가 엔드밀에 집중돼 있다. 이외에도 기계산업용 절삭공구인 드릴(Drill)과 자동차용 절삭공구인 탭(Tap) 관련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각각 20%와 15%를 차지하고 있다.

절삭공구 전문업체 와이지-윈은 한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한 노력으로 오늘의 결과가 가능했다고 말한다. 특히 이 같은 결실은 송호근 와이지-윈 회장의 기술 혁신을 중시하는 남다른 경영철학에 바탕을 두고 있기도 하다.

그 결과 안정적인 품질이 중요한 공구 특성상 오랜 업력에 기반한 시장 인지도와 기 구축된 글로벌 판매망 등이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형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사업항목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2015년 3분기(연결기준) 매출액 2,466억원, 영업이익 301억원, 당기순이익 116억원을 달성하였다.

따라서 와이지-윈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해외시장의 확대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창업 초기부터 해외시장을 겨냥한 만큼 지속적인 품질 개선과 가격 경쟁력 확보를 통해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전 세계 75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75%에 이른다.

그 결과 1992년 미국에 첫 현지 공장 설립 이후, 일본·캐나다의 현지법인을 인수하거나 중국·인도·독일 등 해외 생산법인과 판매법인을 설립하여 20여개의 해외 계열사 네트워크를 통해 시장 선점을 위한 선제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

Analysis - 기업탐방

2040년 매출 50억달러 달성으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

와이지-원은 2015년 9월말 기준으로 인천에 위치한 본사를 포함하여 인천, 안산, 충주 등 국내 7개 생산공장과 인천 송도 R&D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해외법인 은 중국내 생산(Qingdao YG-1 Tool), 임가공 법인(Qingdao New Century Tool)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판매법인 형태이며, 최근 설립한 미국 법인의 경우는 판매와 스페셜 제품의 주문 생산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시장의 공략을 위해 지난 2012년 인수한 일본의 절삭공구 전문업체 ‘산쿄공구(三協工具)’를 통해 올해 본격적인 매출 확대를 강화할 예정으로 있다.

2015년 9월말 기준 해외 종속기업은 총 15개, 그 외에 관계기업이 4개이다. 이 가운데 글로벌 생산기지 역할을 수행하는 중국 법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판매법인 중에서는 주력시장인 유럽을 관장하는 프랑스 법인의 규모가 가장 크다.

국내시장의 경우에는 국내 경기가 완만한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절삭공구 시장은 점진적으로 활성화가 예상되며, 향후 국내 End User의 품질 요구 수준이 점차 높아져, 고품질 절삭공구에 대한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차별화된 제품 공급이 국내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33년간 연 30%의 매출신장을 이뤄온 와이지-원은 지난해(2014년) 매출액 2,976억원, 영업이익 317억원, 당기순이익 115억원을 달성하였다. 지난해 경기부진으로 실적악화를 경험한 대다수 제조업체들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오는 2020년까지 10억달러 달성 목표를 넘어 이후 2030년 30억달러, 2040년 50억달러(약 5조 5,000억원) 달성이라는 야심찬 중장기 비전도 내놓았다. 이를 위해 33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엔드밀 외에도 드릴, 탭 등 절삭공구 전 분야에서 세계 1위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처럼 와이지-원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국가대표라는 자부심으로 2040년까지 매출 50억달러를 달성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세우며 해외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의 도전정신과 품질제일주의를 통한 국경 없는 글로벌 경영을 실현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는 물론 세계 절삭공구업계의 리딩 기업으로써의 미래 청사진을 펼쳐나가고 있다.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봉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 활동

특히 기술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와이지-원은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2012년엔 중소기업청의 중소·중견기업 지원프로그램인 ‘월드클래스300’ 기업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한 기업에 수여하는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에 3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투명회계대상 코스닥시장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으며, 기업의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YG-1 봉사단’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빵 나눔 봉사와 인천 계양산 정화활동도 펼쳤다. 특히 계양산 정화활동은 인천 녹색연합과 연계하여 인천 지역의 청소년 및 어르신들과 함께 활동함으로써 봉사의 의미를 배가시켰다. ‘YG-1 봉사단’은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